

北宋 開封의 風俗과 繁榮의 記錄

- 孟元老의 《東京夢華錄》 읽기 -

金 敏 鎬*

— <目 次> —

- | | |
|--------------------|--------------------|
| I. 《東京夢華錄》의 著者 孟元老 | IV. 《東京夢華錄》의 內容 |
| II. 東京 開封 | V. 《東京夢華錄》과 古典小說戲曲 |
| III. 《東京夢華錄》의 板本 | VI. 나가며 |

I. 《東京夢華錄》의 著者 孟元老

《東京夢華錄》의 저자 孟元老是 宋 徽宗 2년(1103) 先親을 따라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인 당시 東京으로 왔다. 그 후 金의 침입으로 인해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살면서 이전 동경의 변화함을 추억하며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東京夢華錄》이다. 모두 10卷으로 이루어진 《동경몽화록》에는 당시 北宋의 수도였던 汴京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동경몽화록》에는 북송의 도시 생활, 풍속,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都城의 범위에서 황궁의 건축, 관청의 위치에서 성안의 거리, 음식 및 일용 생활에서 歲時 및 節氣, 歌舞曲藝에서 冠婚喪禮에 대한 습관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동경몽화록》의 저자인 孟元老是 號가 幽蘭居士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자세한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元老’는 그의 名이

* 翰林大學校 中國學科 副教授

거나 字일 것이다. 清代 藏書家 常茂徠는 《동경몽화록》의 저자 맹원로를 宋 徽宗 시기 戶部侍郎 孟揆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추측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맹규는 당시 수도의 명승지였던 艮嶽의 건설을 감독하고 지휘하였던 인물이었다. 당시 송 휘종은 도교에 심취해 있었다. 그래서 도사의 풍수설을 받아들여 수도에 있는 上淸宮과 寶籙宮의 동쪽에 萬歲山이란 이름의 假山을 만들었다. 만세산은 ‘艮’ 방향에 있었기에 艮嶽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간악은 宣和 4년(1122년) 완공되었는데, 휘종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艮嶽記>란 글을 짓기도 하였다. 《동경몽화록》에서 저자는 북송의 수도 汴京의 건축물, 거리, 명승고적, 국가 기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궁정의 생활 및 의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에 간악과 같은 명승지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는데, 《동경몽화록》에는 간악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왜 그 유명한 간악에 대해 언급을 안 했을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朱勳은 사치를 즐기는 휘종에게 영합하기 위해 천하 각지에서 花石을 끌어 모으느라 蘇州에 이를 전담하는 應奉局이란 기구까지 만들었다. 이에 화석 운반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이 온 천하에 가득하였고, 이로 인해 반란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간악은 바로 이 화석을 사용해 지은 것으로 백성들의 원성으로 쌓은 것이기에 간악의 축조를 지휘 감독하였던 자의 입장에서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리란 추측도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하여 맹원로가 맹규라고 상무래는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기 에 이는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¹⁾ 현재로서 맹원로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그의 自序에 의거해 그가 崇寧 癸未年(1103)에 汴京으로 들어와 靖康 丙午年(1126)에 변경을 떠나 다음 해에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뿐이다. 그의 자서는 紹興 丁卯年(1147)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

1) 상무래의 추측 상황에 대해서는 上海古典文學出版社 刊 《東京夢華錄外四種》 출판설명 부분을 참고하였음.

데, 淳熙 丁未年(1187)에야 비로소 《동경몽화록》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다.

II. 東京 開封

송대에는 네 곳의 京府가 있었는데, 東京 開封府(현재의 河南 開封), 西京 洛陽府(현재의 河南 洛陽), 北京 大名府(현재의 河北 大名), 南京 應天府(현재의 河南 商邱)가 바로 그곳이다. 이 네 곳의 정부들은 일반적인 다른 부(府)들과는 달랐는데, 그 중 특히 동경은 수도였기에 그 지위가 특출했다.

송대의 지방제도에 있어 府, 州, 郡 監은 같은 레벨의 행정 구역이긴 하였지만 부는 동급 단위 중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경우 지방 단위에 속하지 않고, 오늘날의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이 중앙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직할 단위였다.

개봉부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고시기 개봉은 兗州와 豫州에 속하였다. 春秋 시기에는 鄭 陳 許 蔡, 東虢 등등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 戰國 시기에는 魏나라에 속했고, 그 수도를 개봉에 정하고 大梁이라 이름 붙였다. 秦의 대륙 통일 후 개봉은 三川郡에 속했다가, 다시 潁川郡으로 배속되었다. 漢代가 되면 兗州刺史의 관할인 陳留郡에 속하게 되고, 이는 東漢 시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삼국시대에는 魏나라에 소속되는데 여전히 연주지사의 관할 하에 있지만 그 명칭은 진류군에서 陳留國으로 바뀌게 된다. 晉代에 와서도 위나라 때와 차이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진류국의 수도인 小黃이 바로 개봉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南北朝 시기가 되면 남조의 宋은 진류국을 다시 진류군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후에 진류군은 북방의 魏에 점령되어 梁州에 소속되게 된다. 北魏가 東魏와 西魏로 분열된 후 동위의 梁州에 소속되면서 開封郡과 陳

留郡으로 나뉘어 진다. 北齊가 동위 정권을 계승하면서 개봉은 다시 진류군으로 병합된다. 北周가 북제를 멸망시키면서 양주를 汴州로 개명하였는데, 왜냐하면 汴河 가에 있었기 때문이다

隋나라 초기에 진류군을 폐지하고 변주로 바꿨다가, 煬帝시기 변주를 폐지하고 그 지역을 滎陽郡 및 潁川郡 등으로 분할하였는데, 개봉은 아마도 형양군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唐代 武德 4년(621) 다시 河南道 변주 소속으로 되었고, 天寶 원년(758) 진류군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변주로 되었다. 興元 원년(784) 이곳에 宣武軍을 건립하였는데 朱全忠이 바로 宣武節度使 출신이었다. 주전충은 후에 五代의 첫 왕조인 後梁을 세우는데, 이런 연유로 변주를 開封府로 승격시켰고, 또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後唐은 개봉부를 변주의 宣武軍으로 또 강등시켜 開封城은 당대 말엽의 지위로 다시 내려앉게 된다. 後晉 天福 3년(938) 개봉은 다시 後梁 때의 지위를 회복해 수도가 된다. 後漢 後周 모두 이를 계승하여 송대에 이르기까지 수도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개봉은 五代 後梁에서 시작해 後唐 한 왕조를 제외하고 네 왕조에서 수도의 지위를 누리다 송 건국 후에도 이를 이어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역대 왕조는 개봉을 수도로 삼았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후량이 개봉을 수도로 삼은 것은 후량의 건국자 朱全忠이 이곳에서 宣武軍 節度使를 지냈기에 그의 근거지인 개봉을 수도로 삼았던 것이다. 後晉이 이곳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개봉이 漕運에 편리한 교통 발달 지역이라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었다. 송대 역시 개봉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사방과 통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조건, 즉 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중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고대에는 수도를 건립하는 데 있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地勢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山川과 구릉 등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곳에 수도를 세우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生産物, 人情, 風俗, 교통 등을 고려하여 수도를

정하였었다.

그런데 개봉은 黃河가에 위치한 평원 지역으로 황하 외에는 보호를 해 줄만한 산이나 구릉같은 장애물이 전혀 없다. 만약 북방의 騎兵이 밀고 내려온다면 며칠이 안 걸려 황하가에 도착하게 되고, 황하만 건너면 개봉 성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에 국방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봉을 수도로 정한 것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국방의 관점에서라면 洛陽이나 長安에 자리를 잡는 게 마땅하였을 텐데 왜 송은 개봉을 수도로 정한 것이었을까?

송초 수도를 정할 때 송나라는 안전상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은 조운의 편리함에 더 무게를 실었다. 조운을 통하여 북방의 군대에 양식과 물품을 공급하여 국방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군대는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송대는 前代 왕조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의 병사를 북방에 주둔시켜야 했는데, 이 많은 병사들에게 원활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운이 핵심적이었고, 이에 조운의 중심지인 개봉에 수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太祖(960~976) 趙匡胤은 만년에 낙양으로 천도했다가 최종적으로 장안에 수도를 건립하여 국방상의 안전을 추구하려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량의 兵馬를 양성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僭王으로 봉해져 있던 그의 아우 太宗(976~997) 趙光義는 조운의 이익을 들어 천도를 반대하여 이러한 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眞宗(998~1022) 시기 遼나라의 大軍이 남하하자 조정에서는 다시 천도에 대한 의론이 일기 시작한다. 이 때 대상지로 南京, 四川 등의 지역이 거론되는데 지형이 험준한 낙양과 장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방은 장기간에 걸친 전란으로 인해 낙양과 장안의 물적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 수도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唐代 이후 북방은 남방에서 물자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운이 필수적이었다. 개봉의 경우 황하까

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다시 황하를 통해 洛陽과 長安 근처까지 갈 수 있었는데, 낙양과 장안은 모두 수로를 황하와 연결하여 물자 운송을 하여야만 했다. 만약 이러한 수로가 막힌다면 대량의 물자는 육로를 통해 운송하여야 했고, 이는 막대한 인력, 시간, 금전이 소모되는 상황이었기에 낙양과 장안은 천도의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상황을 보건대 송나라의 國運은 운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때문에 국방상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송나라는 조운에 편리하였던 개봉에 수도를 정하였던 것이다.²⁾

Ⅲ. 《東京夢華錄》의 板本

《동경몽화록》은 작가 맹원로의 나이 60이 가까운 宋 高宗 紹興 17년(1147)에 쓰였고, 송 孝宗 淳熙 14년(1187) 최초의 간행본이 등장한다.

현존하는 《동경몽화록》은 10권 본인 《唐宋叢書·別史》본과 1권 본인 《說郛》본의 두 계통으로 나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10권 본이 1권 본 보다 훨씬 자세하다. 《동경몽화록》의 宋刊本은 이미 찾아볼 수 없고, 지금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元代에 간행된 것으로, 그 후 明 弘治 甲子年(1504)에 다시 간행을 하게 된다. 이 책이 나온 후 계속하여 《秘冊彙函》본, 《津逮秘書》본, 《學津討原》본, 《四庫全書》본, 《三怡堂叢書》본, 《叢書集成初編》본 등이 나오게 된다. 1953년 古典文獻出版社에서 출판한 校點本은 1924년 일본 靜嘉堂文庫本을 저본으로 하였는데, 정가당문고본은 黃丕烈舊藏 元刊明印本을 영인한 것으로, 이 판본은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우수한 판본이다. 그러나 이 판본에도 오자와 훼손된 글자가 있고, 또 轉寫하는 과정에서 잘못 베긴 부분이 있기에 秀水金氏梅花

2) Ⅱ. 東京 開封 부분은 기본적으로 入矢義高·梅原郁 譯註 《東京夢華錄 - 宋代の都市と生活》(東京: 平凡社, 1996), 11-18 쪽과 王明蓀 編撰 《東京夢華錄》(台北: 時報出版公司, 1983), 9-17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草堂影印汲古閣景元鈔本, 《秘冊彙函》本, 《學津討原》本 및 《說郛》본 등을 참고하여 校勘을 한 것이 바로 1953년 고전문헌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점본이다.

1956년 上海古典文學出版社에서 출판된 《東京夢華錄外四種》은 1953년 古典文獻出版社에서 출판한 校點本과 동일한 판본으로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뛰어나다. 이 판본의 기초 위에 1959년 商務印書館에서 鄧之誠이 주를 단 《東京夢華錄注》를 1982년 中華書局에서 중국고대도시자료선간(中國古代都城資料選刊)으로 다시 출판하였다.

현재 출판된 《동경몽화록》 관련 책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번역본으로는 일본의 入矢義高와 梅原郁이 1996년 平凡社에서 주를 달고 번역한 《東京夢華錄 - 宋代の都市と生活》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그 주의 자세함과 깊이로 인해 현존하는 譯註本 중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다. 이외에 1998년 貴州人民出版社에서 출판된 姜漢椿이 번역하고 주를 단 《東京夢華錄全譯》의 경우 白話로 번역을 하였는데, 주석이나 번역의 성실도에 있어 평범사 간 《동경몽화록》에는 미치지 못한다. 臺灣의 王明蓀은 1983년 時報出版公司에서 《동경몽화록》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동경몽화록》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대략의 순서는 유지한 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이 책에는 삽화도 많이 첨가되어 있어 송대 사회를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2004년 대만 實學社에서 黃驗이 주를 단 《圖解東京夢華錄》의 경우 비록 주 자체는 소략하지만 다양한 그림 자료가 있어 《동경몽화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文物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2001년 李士彪가 주를 달고 山東友誼出版社에서 출판한 《東京夢華錄》과 1998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에서 출판한 《東京夢華錄外四種》 등의 책도 현재 나와 있다.

IV. 《東京夢華錄》의 內容

《동경몽화록》은 서문과 총 10권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동경몽화록》 모든 條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언급하여 《동경몽화록》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겠다.

권1 <동경의 외성(東都外城)> 條에서는 동서남북의 外城에 있는 성문들과 성의 구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옛 변경성(舊京城)>조에서도 동서남북의 內城에 있는 성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도(河道)>조에서는 성을 관통하는 蔡河, 汴河, 五丈河, 金水河 등 네 개의 물길과 이 위를 지나가는 다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황궁(大內)>조에서는 內城에 있는 성문들에 대한 언급들과 함께 황궁 내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각 관청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들에 대한 묘사도 등장하고 있다. <황궁 안에 있던 여러 관청들(內諸司)>조에서는 學士院에서 明堂頒朔布政府에 이르기까지 황궁 안에 있던 다양한 관서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 <황궁 밖에 있던 여러 관청들(外諸司)>조에서는 左右金吾街司, 京城守具所, 四熟藥局, 象院 등 황궁 밖에 있던 다양한 관서들을 열거하고 있다.

권2 <어가(御街)>조에서는 宣德樓에서 남쪽으로 뻗은 어가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선덕루 앞에 있는 왕족의 저택과 궁전들(宣德樓前省府宮宇)>조에서는 선덕루 앞쪽에 있는 다양한 궁전들과 함께 술집, 식당, 기생집 등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주작문 밖의 거리(朱雀門外街巷)>조에는 주작문 밖 거리에 있는 國子監, 貢院 같은 공공 기관들과 정자, 사당, 道觀 및 주점 등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주교의 야시장(州橋夜市)>조에는 주교 주위 야시장에서 파는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동각루 거리(東角樓街巷)>조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생강 가게, 매 가게 등 다양한 상점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노리개 및 먹을거리를 파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고, 瓦子 및 그 와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공

연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이외에 <반루동가의 거리(潘樓東街巷)>조에서는 다양한 시장과 주점에 대해 묘사하였고, <술집(酒樓)>조에서는 任店, 楊樓의 등의 술집에 대한 소개와 함께 正店과 脚店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음식물과 과일류(飲食果子)>조에서는 술집에서 안주를 팔고 물건을 파는 상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많은 안주를 열거하고 있다.

권3 <마항가 북쪽에 있는 여러 약 가게들(馬行街北諸醫鋪)> 조에서는 고약가게,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황궁의 서쪽, 우액문 밖의 거리(大內西右掖門外街巷)>조에서는 황궁의 서쪽과 우액문 밖 거리에 있는 사당, 약국, 주점 및 와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 <황궁 앞 주교 동쪽 거리(大內前州橋東街巷)>조에는 만두가게, 道觀, 염색가게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상국사안의 대중 시장(相國寺內萬姓交易)>조에는 상국사안에서 서는 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한 달에 다섯 번씩 서는 장에서 파는 다양한 물품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상국사 동문거리(寺東門街巷)>조에는 상국사 동문 쪽에 있는 거리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양한 음식점, 여관, 주점 등의 언급과 함께 상국사 바로 옆에 기생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흥미로운 언급도 있다. <상청궁(上清宮)>조에는 상청궁 주위에 있는 절들과 도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상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청궁 앞에도 桃花洞이라는 기생 거리가 있었다는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마항가의 가게들(馬行街鋪席)>조에는 와자 상황과 함께 음식점 및 야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여러 종류의 운반수레들(般載雜賣)>조에서는 太平車, 平頭車, 獨輪車, 串車, 浪子車, 痴車 등과 같은 다양한 수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도시의 금전 단위(都市錢陌)>조에서는 각 업종마다 실제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인력시장(雇覓人力)>조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소개하는 중개인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화재예방(防火)>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파출소와 망루를 운영하는 등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날이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다(天曉諸人入市)>조에서는 새벽 4시를 전후하여 생업을 위해 깨어나는 도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집회점

들(諸色雜賣) 조에서는 에완동물 사료를 공급해 주는 상황에서부터 다양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대행해 주는 업종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권4 <군두사(軍頭司)>조에는 송대 禁軍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다. <황태자가 태자비를 맞다(皇太子納妃)>조에서는 황태자가 태자비를 맞을 때의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고, <공주의 출가(公主出降)>조에는 공주가出嫁할 때의 행차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다. <황후가 외출할 때 타는 가마(皇后出乘輿)>조에는 皇后 및 皇太后가 외출할 때의 의장 행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반 서민들이 혼인할 때의 의장 행렬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으며, <잡다한 임대 물품들(雜貨)>조에는 상을 당하였을 경우 장례용품의 임대 등에 관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의 수리 및 승려에게 齋를 청하기(修整雜貨及齋僧請道)>조에서는 집을 고치거나 재를 올릴 때 일꾼이나 승려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 다리 주변 시장 등에 가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인부들이나 승려들을 부르던 등다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연회 물품의 임대(筵會假賃)>조에서는 연회를 할 경우 돈만 있으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회선루(會仙酒樓)>조에서는 술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큰 술집인 正店 회선루에서 술을 마시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음식점(食店)>조에는 다양한 음식의 열거와 함께 한꺼번에 20여개의 주발을 겹쳐쌓아 들고 오는 묘기와도 같은 음식 운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다. <고기집(肉行)>조에는 고기 파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병점(餅店)>조에는 다양한 餅이 열거되어 있으며, <어물전(魚行)>조에는 活魚를 파는 상황이 나와 있다.

권5 <민속(民俗)> 조에는 각 업종마다 입는 옷들이 다른 상황과 함께 개봉 사람들의 의기 있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다. <東京 瓦肆의 기예(京瓦伎藝)>조에는 와사에서 공연되던 雜劇, 傀儡戲, 講史, 小說, 散樂, 諸宮調, 合生, 說譯話, 說三分 등등 갖가지 장르의 열거와 함께 이 공연들의 名人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며느리 얻기(取婦)>조에는 신부를 맞이하는 상황이 순서대로 언급되어 있고, <육아(育子)>조에는 산달에서

첫들까지 행하는 일들에 대한 묘사가 있다.

권6부터 권10까지는 正月에서 12월에 이르는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절기며 행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권6 <정월(正月)>조에는 정월 초하루 도박의 일종인 關撲을 하는 것과 높은 집안의 부녀자들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고, <새해 아침의 조회(元旦朝會)>조에는 관리들과 각국의 사신들이 참석해 조회를 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다. <입춘(立春)>조에는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春牛를 때리는 의식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 <정월 대보름(元宵)>조에서는 선덕루 앞에서 蹴鞠, 踏索, 傀儡戲, 雜劇 등 다양한 기예를 공연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월 14일 황제가 오악관에 행차하다(十四日車駕幸五嶽觀)>조에는 황제가 1월 14일 五嶽觀 迎祥池로 행차하는 행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고, <정월 16일(十六日)>조에서는 황제가 宣德門 위에 나타나는 상황과 도성 사람들이 등불 구경을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을 걷고, 동경 사람들이 성을 나와 봄을 즐기다(收燈都人出城探春)>조에서는 원소절 기간 동안 걸어 두었던 등을 걷고 도성 사람들이 교외로 봄나들이 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권7 <청명절(清明節)>조에는 성묘를 하고, 교외에 나가 노는 당시 모습이 그려져 있고, <3월 1일 금명지와 경림원을 개장하다(三月一日開金明池瓊林苑)>조에는 황제가 金明池에 행차해 爭標 등의 공연 구경을 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황제가 임수전에 행차해 쟁표를 관람하고 연회를 베풀다(駕幸臨水殿觀爭標錫宴)>조에서는 금명지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기예를 황제가 관람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고, <황제가 경림원에 행차하다(駕幸瓊林苑)>조에는 경림원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황제가 보진루 연전에 행차하다(駕幸寶津樓宴殿)>조에서는 황제가 보진루 남쪽에 있는 연전에 행차하는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황제가 보진루에 오르자 여러 부대에서 갖가지 공연을 황제께 바치다(駕登寶津樓諸軍呈百戲)>조에는 보진루에서 말타기 공놀이 등의 다양한 기예를 황제에게 바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황제가 사전에 행차해 활을 쏘다(駕幸射殿射弓)>조에는 황제가 射殿에 행차해 활을 쏘고, 또 활과 관련된 기예를 관람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금명지와 경림원 안에서 사람들

이 도박과 유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다(池苑內縱人關卜遊戲) 조에는 금명지와 경림원 안에 술집과 技藝人들이 차린 공연장 등에 대한 상황과 함께 판매하던 음식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回宮 할 때의 의장 행렬(駕回儀衛)> 조에는 황제가 회궁할 때의 거리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다.

권8 <사월초파일(四月八日)> 조에는 佛誕日을 맞아 부처님을 씻기는 浴佛齋會 상황과 큰 술집인 正店에서 양조한 술을 처음으로 파는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단오(端午)> 조에는 단오 때 쓰이던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6월 6일 최부군의 탄신일과 6월 24일 二郎神의 탄신일(六月六日崔府君生日二十四日神保觀神生日)> 조에는 崔府君의 탄신일과 灌口二郎神의 탄신일에 행해지는 다양한 기예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6월에 저자거리에서 팔던 다양한 물건들(是月巷陌雜賣)> 조에는 6월에 팔던 다양한 식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얼음을 파는 상황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칠석(七夕)> 조에서는 칠월칠석 때 행하는 다양한 풍습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중원절(中元節)> 조에서는 와자에서 물건들을 파는 상황과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외에 <입추(立秋)> 조에서는 가시연밥의 수요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고, <추사(秋社)> 조에서는 가을에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추사 때의 풍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한가위(中秋)> 조에서는 한가위에 술을 즐기던 汴京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중양절(重陽)> 조에서는 국화를 감상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절에서 齋會를 여는 상황에 대해 묘사하였다.

권9 <시월 초하루(十月一日)> 조에는 신하들이 겨울옷을 받는 상황과 관련 관청에서 석탄을 진상하는 상황이 나와 있고, <천녕절(天寧節)> 조에는 송 徽宗의 탄생일인 10월 10일 천녕절에 相國寺에 가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齋筵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상과 執政, 親王과 皇族, 그리고 百官이 궁궐로 들어와 황제께 술을 올려 祝壽를 드리다(宰執親王宗室百官入內上壽)> 조에는 제상과 百官들이 궁궐로 들어와 황제께 축수를 드리는 大起居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입동(立冬)> 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다.

권10 <동지(冬至)> 조에서는 동지에 都城 사람들이 새 옷을 마련해 입고, 서로 축하하며 왕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大祭를 올리기 전의 수레와 코끼리의 예행연습(大禮預教車象)> 조에는 大祭를 올리는 해 코끼리가 등장하는 의식에 대한 묘사가 있다. <황제가 大慶殿에 머물다(車駕

宿大慶殿) > 조에는 황제가 대경전에 머물 때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고, <황제의 행차를 수행하는 儀仗兵(駕行儀衛)> 조에는 황제의 青城 행차를 수행하는 의장 행렬에 대한 묘사가 있다. 그리고 <황제가 태묘에 머물며 신주를 모시고 방을 나오다(駕宿太廟奉神主出室)> 조에서는 황제가 太廟에서 머물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황제가 청성재궁에 이르다(駕詣青城齋宮)> 조에서는 황제가 청성재궁에 이르렀을 때의 군대 배치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외에 <황제가 교단에 가 예를 드리다(駕詣郊壇行禮)> 조에는 황제가 郊壇에 가 예를 올리는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郊祀가 끝나면 황제가 궁으로 돌아오다(郊畢駕回)> 조에는 황제가 궁궐로 돌아와 恭謝의 예를 행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리고 <십이월(十二月)> 조에는 臘八粥을 먹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풍속에 대한 언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야(除夕)> 조에는 악귀를 쫓아내는 행사에 대한 묘사가 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 본 것처럼 《동경몽화록》에는 궁궐과 국가 기구, 당시 동경의 거리 상황, 민속, 잡희, 의식(儀式), 서민들의 생활상 등 당시 시대상을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사(正史)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송대 사회의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V. 《東京夢華錄》과 古典小說戲曲

《동경몽화록》에는 話本小說 및 희곡과 관련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특히 설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勾欄과 瓦肆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들을 골라 소개하기로 하겠다.

《동경몽화록》에는 곳곳에 구란과 와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특히 권5 <東京 瓦肆의 기예(京瓦伎藝)> 조에는 당시 구란과 와사에서 說書와 雜劇을 공연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중국 소설 및 희곡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東京 瓦肆의 기예(京瓦伎藝)

崇寧年間(1102~1106)과 大觀年間(1107~1110) 이래 동경의 와사에는 다양한 기예들이 있었다. 張廷叟와 孟子書는 잡극의 무대를 마음껏 지휘하였다. 小唱을 하는 자들로는 李師師·徐婆惜·封宜奴·孫三四 등이 있었는데, 진실로 소창 예인들 중 뛰어난 자들이었다. 嘌唱으로는 기녀인 張七七·王京奴·左小四·安娘·毛團 등이 유명하였다. 教坊이 잠시 폐지되었으나 계속해서 연습을 하였던 張翠蓋·張成, 그리고 기녀인 薛子大·薛子小·俏枝兒·楊總惜·周壽奴·稱心 등이 雜劇을 공연하였다. 杖頭傀儡로는 任小三이 있었는데 매일 五更(새벽 3~5시)에 첫 회 小雜劇을 공연하였는데, 조금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 볼 수가 없었다. 懸絲傀儡로는 張金線이 있었고, 李外寧은 藥發傀儡로 유명하였다. 張臻妙·溫奴哥·眞個強·沒勃膻·小掉刀는 몸 위에 밧줄을 감고 여러 묘기들을 보였다. 渾身眼·李宗正·張哥는 장대를 타고 공을 차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孫寬·孫十五·曾無黨·高恕·李孝詳은 講史를 잘 하였다. 李撻·楊中立·張十一·徐明·趙世亨·賈九는 小說로 유명하였다. 王顏喜·蓋中寶·劉名廣은 散樂을 공연하였다. 張眞奴는 舞旋에 뛰어났다. 楊望과 京小兒는 相撲雜劇과 掉刀變牌 등을 잘 하였다. 董十五·趙七·曹保義·朱婆兒·沒困駝·風僧哥·姐六姐는 影戲에 뛰어났다. 丁儀·瘦吉 등은 喬影戲를 하였다. 劉百禽은 蟲蟻를 하였다. 孔三傳·耍秀才는 諸宮調에 뛰어났다. 毛詳·霍伯醜는 商謎를 잘 하였다. 吳八兒는 合生을 하였다. 張山人은 說諺話에 뛰어났다. 劉喬·河北子·帛遂·胡牛兒·達眼五·重明喬·駱駝兒·李敦 등은 雜班에 뛰어났다. 외지에서 들어 온 孫三은 神鬼를 잘 공연하였다. 霍四究는 說三分을 잘 하였다. 尹常은 五代史로 먹고 살았다. 文八娘은 叫果子로 유명하였다. 이밖에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였다. 이러한 공연들의 경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춥고 덥고를 가리지 않고 각각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밀려들어왔다. 教坊과 鈞容直에서는 열흘 간격으로 있는 휴일마다 악기 연습을 하였는데, 이 때 일반 사람들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궁전에서 연회가 있기 한 달 전 교방에서는 배우와 어린 아이를 모집하여 隊舞를 추는 법과 악기 다루는 법, 그리고 잡극의 각 장면 등을 연습시켰다.(崇觀以來,在京瓦肆伎藝,張廷叟·孟子書主張,小唱李師師·徐婆惜·封宜奴·孫三四等,誠其角者 嘌唱弟子張七七·王京奴·左小四·安娘·毛團等,教坊減罷并溫習張翠蓋·張成,弟子薛子大·薛子小·

俏枝兒·楊總惜·周壽奴·稱心等般雜劇. 杖頭傀儡任小三, 每日五更頭回小雜劇, 差晚看不及矣. 懸絲傀儡張金線 李外寧 藥發傀儡 張臻妙·溫奴哥·真個強·沒勃臍·小掉刀, 筋骨上索雜手伎. 渾身眼·李宗正·張哥, 毬杖踢弄. 孫寬·孫十五·曾無黨·高恕·李孝詳, 講史 李撻·楊中立·張十一·徐明·趙世亨·賈九, 小說 王顏喜·蓋中寶·劉名廣, 散樂 張真奴 舞旋 楊望·京小兒相撲雜劇·掉刀變牌 董十五·趙七·曹保義·朱婆兒·沒困駝·風僧哥·姐六姐, 影戲 丁儀·瘦吉等弄喬影戲 劉百禽弄蟲蟻 孔三傳·耍秀才, 諸宮調 毛詳·霍伯醜商謎 吳八兒合生 張山人說禪話 劉喬·河北子·帛遂·胡牛兒·達眼五·重明喬·駱駝兒·李敦等雜班. 外入孫三神鬼 霍四究說三分 尹常寶五代史 文八娘叫果子. 其餘不可勝數 不以風雨寒暑 諸棚看人日日如是. 教坊·鈞容直, 每遇旬休按樂, 亦許人觀看. 每遇內宴前一月, 教坊內勾集弟子小兒, 習隊舞作樂, 雜劇節次.)

-<東京 瓦肆의 기예(京瓦伎藝)> 조全文

이처럼 구란과 와사에서 공연되던 다양한 공연 장르와 그 공연자들에 대한 언급은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각의 공연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있었다면 후대 사람들이 당시 공연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동경몽화록》에는 와사 및 기예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더 있다.

우선 당시 동경에 있던 와사에 대한 언급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만루가의 남쪽에는 상씨네(桑家) 瓦子가 있었다. 북쪽 근처에는 中瓦, 그 다음에 裏瓦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크고 작은 勾欄이 50여개 있었다. 그 중 중와자 안에는 蓮花棚, 牡丹棚이 있었고, 리와자 안에는 夜叉棚과 象棚이 있었는데 이 둘이 제일 커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丁先現 王團子, 張七聖 등의 무리들을 뒤이어 나중에 여기서 공연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와자 안에는 약을 팔고, 점치고, 헌옷을 소리쳐 팔고, 음식을 팔고, 剪紙花를 팔고, 曲子들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머물고 있었기에, 구경꾼들은 날이 저무는 지도 모르고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다. (街南桑家瓦子, 近北則中瓦, 次裏瓦. 其中大小勾欄五十餘座. 內中瓦子蓮花棚, 牡丹棚, 裏瓦子夜叉棚, 象棚最大, 可容數千人. 自丁先現, 王團子, 張七聖

輩，後來可有人於此作場。瓦中多有貨藥，賣卦，喝故衣，探搏飲食，剃剪紙畫，令曲之類，終日居此，不覺抵暮。

-권2 <동각루 거리(東角樓街巷)>조

거리 남쪽으로는 蔡太師의 저택이 있었고, 서쪽으로 가면 州西 瓦子가 있었다. 주서와지는 남쪽으로 汴河 기슭에서 북쪽으로 梁門大街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었고, 裏瓦 다음가는 규모로 1里(약 580m) 정도에 펼쳐져 있었다.(西去州西瓦子，南自汴河岸，北抵梁門大街，亞其裏瓦，約一里有餘)

-권3 <황궁의 서쪽, 우역문 밖의 거리(大內西右掖門外街巷)>조

馬行街에서 북쪽으로 가면 舊封丘門 밖 祿廟斜街와 개봉의 북쪽 瓦子에 다다랐다. 新封丘門大街 양쪽에는 백성들의 가게들이 있었고, 그 외에 황제 친위부대들의 군영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신봉구문대까지 가는데 약 십 여리(약 5~6km)에 걸쳐 있었다. 그 밖의 마을과 거주지는 가로와 세로로 만 단위로 수를 세어야 할 정도로 많아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곳곳마다 대문이 몰려 있고, 각각의 다방과 주점, 기예를 하는 사람들의 공연장인 勾欄과 瓦肆 및 음식점들이 있었다.(馬行北去，舊封丘門外祿廟斜街·州北瓦子。新封丘門大街，兩邊民戶鋪席，外餘諸班直軍營相對，至門約十餘里。其餘坊巷院落，縱橫萬數，莫知紀極。處處擁門，各有茶坊酒店，勾肆飲食。)

-권3 <마행가의 가게들(馬行街鋪席)>조

천자는 이곳에 행차해 말타기, 활쏘기 및 각종 기예를 보았다. 金明池의 東岸에 물과 마주한 벽에는 모두 수양버들이 있었고, 양쪽에 채색 비단 무대와 천막이 가득 늘어서 있었는데, 물가의 천막들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으로 이곳에서 爭標 구경을 하였다. 거리의 동쪽은 모두 음식점, 交易場, 기예인들의 구란과 와사로 가득 차 있었다. 전당포의 경우 인제 물건을 맡겼는가를 가리지 않고, 금명지가 폐쇄될 때까지 전당잡힌 물건들을 팔지 않았다.(車駕臨幸，觀騎射百戲於此。池之東岸，臨水近牆皆垂楊，兩邊皆綵棚幕次，臨水假賃，觀看爭標。街東皆酒食店舍，博易場戶，藝人勾肆，賃庫，不以幾日解下，只至閉池，便典沒出賣)

-권7 <3월 1일 금명지와 경림원을 개장하다(三月一日開金明池瓊林苑)>조

칠월칠석에는 潘樓街, 도성 동쪽의 宋門 밖 瓦子, 도성 서쪽 梁門 밖 瓦子, 北門 밖과 도성 남쪽 朱雀門外街 및 馬行街 안 까지 모두 진흙을 이겨 만든 조그만 土偶인 磨喝樂을 팔았다.(七月七夕, 潘樓街東宋門外瓦子, 州西梁門外瓦子, 北門外·南朱雀門外街及馬行街內, 皆賣磨喝樂, 乃小塑土偶耳)

-권8 <칠석(七夕)>조

潘樓와 도성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瓦子에서는 칠석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果食, 種生, 花果 같은 것들을 팔았고, 또 尊勝經과 目連經을 인쇄해 팔았다.(潘樓并州東西瓦子, 亦如七夕, 要鬧處亦賣果食·種生·花果之類, 及印賣尊勝·目連經)

-권8 <중원절(中元節)>조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동경몽화록》에는 桑家瓦子, 中瓦, 裏瓦, 州東瓦子, 州西瓦子, 州北瓦子, 金明池의 東岸의 瓦子, 宋門外瓦子 등의 와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규모를 말하자면 와자에 속하는 수많은 棚 중 한 곳이 수천 명 이상을 수용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공연뿐 아니라 물건 및 음식들도 팔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권3 <여러 잡화점들(諸色雜賣)>조에는 군대에서 藝人들을 모아 군악대 연주를 벌이면 어린이나 부인네들이 구경을 온다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고, 권4 <연회 물품의 임대(筵會假賃)>조에는 說唱 등의 공연과 술을 권하는 등의 일을 하는 白席人에 대한 언급도 있다.

그리고 권7 <황제가 임수전에 행차해 쟁표를 관람하고 연회를 베푸다(駕幸臨水殿觀爭標錫宴)>조, 권7 <황제가 보진루에 오르자 여러 부대에서 갖가지 공연을 황제께 바치다(駕登寶津樓諸軍呈百戲)>조, 권8 <6월 6일 최부군의 탄신일과 6월 24일 二郎神의 탄신일(六月六日崔府君生日二十四日神保觀神生日)>조, 권9 <재상과 執政, 親王과 皇族, 그리고 百官이 궁궐로 들어와 황제께 술을 올려 祝壽를 드리다(宰執親王宗室百官入內上壽)>

조 등에도 수많은 기예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 희곡 및 소설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처럼 《동경몽화록》에는 소설 및 희곡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구판, 와사, 그리고 기예에 대한 자료가 도처에 있어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VI. 나가며

중국 고전소설, 특히 話本小說을 연구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당시의 습속 및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소설 작품을 誤讀하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화본소설의 배경이 되는 송대 사회상을 자세하게 묘사한 《동경몽화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경몽화록》에는 東京을 중심으로 하여 서민의 생활에서부터 황궁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송대 사회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동경몽화록》의 출현 이전에는 이처럼 전면적으로 도시 생활을 묘사한 저작이 없었다. 《동경몽화록》은 내용이 상세하여 당시 다른 문헌들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다. 徐夢莘의 《三朝北盟會編》과 陳元靚의 《歲時廣記》, 그리고 百歲寓翁의 《楓窓小牘》 등에서도 《동경몽화록》의 내용을 대량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몽화록》의 출현으로 인해 《西湖老人繁勝錄》, 《夢梁錄》, 《都城紀勝》, 《武林舊事》 등 일련의 《동경몽화록》을 모방한 저작들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경몽화록》은 張擇端의 <清明上河圖>와 함께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 민속사, 도시사, 문화사 뿐 아니라 문학사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자료이다.

< 參考文獻 >

- 孟元老, 《東京夢華錄外四種》(上海: 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56.
- 鄧之誠 注, 《東京夢華錄注》(北京: 中華書局), 1982,
- 入矢義高·梅原郁 譯註, 《東京夢華錄 - 宋代の都市と生活》(東京: 平凡社), 1996.
- 姜漢椿 譯註, 《東京夢華錄全譯》(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8.
- 王明蓀 編撰, 《東京夢華錄》(台北: 時報出版公司), 1983.
- 黃驗 注, 《圖解東京夢華錄》(台北: 實學社), 2004.
- 吳自牧 著, 梅原郁 譯, 《夢粱錄》1-3(東京: 平凡社), 2000.
- 徐兢 著, 조동원 等譯, 《고려도경》(서울: 황소자리), 2005.
- 沈括 지음, 최병규 역, 《몽계필담》(서울: 범우사), 2002.
- 趙廣超, 《筆記清明上河圖》(香港: 三聯書店), 2004.
- 周寶珠, 《宋代東京研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2.
- 傅起鳳·傅騰龍, 《中國雜技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9.
- 吳晟, 《瓦舍文化與宋元雜劇》(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John W. Chaffee 지음, 양종국 옮김,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서울: 신서원), 2001.
- 자크 제르네, 김영제 옮김, 《전통 중국인의 일상생활》4 권 서울 신서원, 2003.

< 中文提要 >

宋代的經濟始終處於上昇的趨勢, 商品經濟也獲得了巨大發展. 城市經濟在全國經濟中的比重明顯增價, 城市的規模日益擴大, 地位日趨重要, 成爲中國城市發展史上的一個突出變化, 特別是北宋的首都東京開封, 更是當時世界上人口最多, 經濟最爲發達, 最爲繁榮的城市之一. 這在宋代的史書志乘及衆多的

文人筆記，著述中，都有大量生動的記載。然而，最為完整，全面地反映北宋京城社會生活的，當推為《東京夢華錄》。

宋孟元老的《東京夢華錄》所記述的，從都城的範圍到皇宮建築，從官署的處所到城內的街坊，從飲食起居到歲時節令，從歌舞曲藝到婚喪習俗，幾乎無所不包，不僅可以了解當時的民風時尚，同時也能感受到宋代發達的經濟和繁榮的城市生活。還有《東京夢華錄》裏的有關小說戲曲方面的資料，給古典小說戲曲研究者幫很多助。

주제어 : 東京夢華錄, 孟元老, 幽蘭居士, 東京, 開封, 開封府, 汴京, 宋

K C I